지식경제부 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11년 5월 24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자동차조선과 과장 주영준(2110-5631), 김종주 서기관(2110-5634)	

자동차부품산업, 잘 나갈 때 더 챙긴다

- 지경부 장관, 자동차 업계와 간담회 개최 -
- 자동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제고 대책 발표 및 업계 의견 수렴 -

□ **지식경제부**는 '11.5.23(월) **최중경 장관 주재**로 현대차, 한국GM 등 **완성차 5개사**와 **주요 자동차 부품업계 대표,** 자동차부품연구원, Kotra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함

○ 이번 간담회는 **한-EU, 한미 FTA 체결** 등 **자동차 부품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 **자동차부품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과 자동차**업계의 현안 등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됨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11. 5. 23(월) 14:00 - 15:30, 조선호텔 라일락 홀(2층)
◈ 참석자 : 지경부 최중경 장관 및 자동차업체 대표 14명, 유관기관 6명
◈ 논의내용 : 자동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제고 대책 및 업계 현안

□ 지식경제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에서 마련 중인 **"자동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제고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함

○ **최중경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자동차산업 경기회복, 현지생산 증가 등**으로 자동차 부품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 **호황기일수록** 자동차 부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책수립 배경**을 밝힘

□ 지식경제부가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한 **"자동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제고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Auto-parts Park(APP) 조성을 통한 부품업체의 현지활동 지원

○ 자동차부품업체가 **해외 글로벌 완성차사와 지속적 접촉 및 공급루트 발굴, 완성차사에 대한 정보 획득** 등 부품업체의 **현지활동을 지원**하는 가칭 **"Auto-parts Park"**를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

○ Auto-parts Park는 **자동차기업 특화 현지 사무공간(Auto-parts Base-camp) 제공과 공동물류센터 확충**으로 이루어질 예정

- 이를 위해 지경부는 **금년 중** 기존 수출인큐베이트 사업을 활용하여 **북미(시카고), 유럽(프랑크푸르트)에** 현지 사무공간 **2곳을 우선 조성**하고, 관련 예산 확보 후 **'12년부터** 디트로이트, 뮌헨 등 **자동차 중심지 7~10곳*으로 확대**할 계획

* Auto-parts Base camp 후보지역 : 북미(시카고, 디트로이트, 토론토 등), 유럽(프랑크푸르트, 파리, 함부르크 등), 기타(베이징, 인도 등)

- 또한, **適期(적기) 부품공급 등**을 위해 **Kotra**를 통해 **금년에** 자동차 신흥시장인 **인도(뉴델리)에 공동물류센터를 개설**하고, **'12년 이후 호주(시드니)** 등에도 **추가 개설** 추진

○ 이러한 Auto-parts Park의 구축은 현지 완성차업체의 **스펙조정 요구 등을 현지에서 신속히 대응**하여 부품업체의 신뢰성과 공급기회를 제고하는 동시에 물류비용의 감소도 기대됨

* 외국 완성차업계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부품업체의 현지사무소 운영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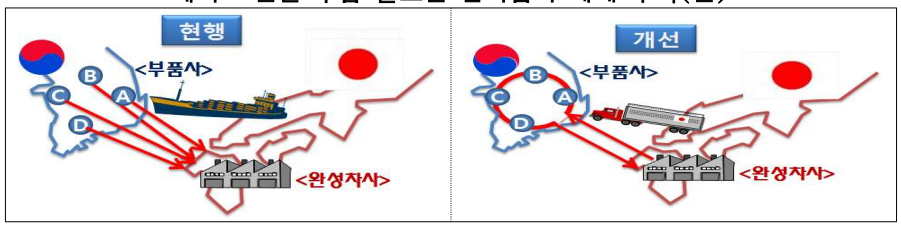
② 한중일 글로벌 순회집하(MILK Run) 체제 구축

○ 지경부는 **한중일간 지리적인 근접성을 활용한** 자동차부품의 **해외 공급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국가내에서 사용되는 **순회집하 물류체계를 한중일 "국가간 물류체계"로 확대**한다는 계획

○ 이는 국내 부품사가 컨테이너선을 이용하여 수출하는 기존 방식 대신, 中, 日 **완성차사**가 화물을 싣는 트레일러를 카페리에 싣고 입국하여 국내 **부품업체를 순회, 부품 집하(集荷)** 후 **트레일러째 본국으로 배송하는 新 물류 시스템**임

- 이러한 **新 물류체계의 도입시** 컨테이너 야적장 하역, 보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 감소로 부품공급 **시간을 단축하여**(일본, 30일→4일) **적기 공급과 원가경쟁력을 높여** 해외업체에 대한 **부품공급 확대** 기대

< 예시 : 한일 부품 글로벌 순회집하 체계 구축(안) >



○ 지경부는 글로벌 Milk Run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상대국 자동차의 자국내 운행 허용을 위한 정부간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韓中과는 '10. 11월 협약 기체결),

- 그러나 **협약체결 이전에라도** 일본차(트레일러)의 **국내 시범운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정의 정비를** 관계부처(국토부 등)와 현재 협의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수출입 통관 관리, 발주정보, 운행정보 등 **관련 정보시스템을 확충**하여 **新 물류시스템을 통한 부품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지경부는 **한일 경제교류회의(9월)** 등을 통해 순회집하 물류체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 한일간 사업성과를 토대로 **'12년 이후 중국과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

○ 자동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러한 물류체계 구축**은 **한중일간 부품공급 기회를 높여 3국간 FTA 체결이전에도 시장이 한층 더 가까워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임

③ 국내진출 완성차사의 "한국부품 글로벌 공급지원센터" 운영

○ 우리나라에 진출한 **한국GM, 르노삼성, 쌍용**(마힌드라) 등 **글로벌 완성차社**도 한국 자동차부품의 글로벌 공급확대에 나서기로 함

○ 이들 완성차사는 自社내에 **"자동차부품 글로벌 공급지원센터"**를 두고,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국내 우수 부품업체를 **자사의 글로벌 구매본부에 추천**함으로써 해외 계열사에 국내부품의 공급기회가 확대되도록 지원할 예정

< 국내진출 완성차社 한국부품 글로벌 공급 지원센터 설치(안) >



- 이를 통해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은 글로벌기업에 대한 부품공급 방안에 대해 문의 등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국내 진출 해외 완성차사는 국내부품업체 대상으로 **해외 계열기업의 구매정책을 소개하고**

- 구매의사 결정에 영향이 크지만, 국내업체의 개별 접근이 어려운 **글로벌 구매부서 엔지니어와 1:1 면담 주선 등**도 지원할 계획

- 그 외에도 **해외 전시회를 활용**하여, **해외 계열사 사업장에 한국업체의 소개도 확대**할 계획임

○ 이러한 "한국부품 글로벌 공급지원센터"는 **기존 납품업체 외에 새로운 부품업체에게도 해외 계열사에 대한 납품기회를 확대**하고, **완성차에게는 우수한 신규업체를 발굴**함으로써 **상호 윈-윈하는 전형적인 동반성장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④ 원산지 증명 지원 등

○ 정부는 **FTA 체결**로 인한 관세감면 혜택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을 위해 "원산지증명 지원시스템"**을 **KTNET**((주)한국무역정보통신)**에 구축**하여 금년 6월부터는 **원산지 판정, 사후 검증에 대비한 증빙서류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아울러 **원산지 증명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나가기로 함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기존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이외에 해외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과 새로운 물류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이 크게 강조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동차부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함

□ 이날 발표된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 신흥시장 개척, 선진국과 공동기술 개발확대 등의 대책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자동차부품 글로벌 경쟁력제고 대책'으로 최종 발표될 예정임

○ 동 대책이 원만히 추진될 경우, 그간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내수 및 국내완성차사 위주의 공급구조를 탈피하여 공급구조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투자확대 문제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업계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함

○ **최중경 장관**은 **그린카 경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전제하고,** 시장선점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함**

○ 또한 최 장관은 최근 무리한 단가조정 관행에 대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함. 끝.

붙임 : 자동차업계 간담회 개요

<붙임>

지경부-자동차업계 간담회 개최 개요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11.5.23(월) 14:00~15:30, 조선호텔 라일락홀(2층)**

○ 주요 참석자(25)

- (지경부) **장관**, 성장동력실장, 주력산업정책관, 자동차조선과장, 무역정책과장 등 5명
- (유관기관) 자동차부품연구원장, 중진공 이사장, KINET 사장, KOTRA 본부장 자동차공업협회장,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6명
- (자동차업계)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GM·쌍용 등 완성차 5사 부품업체 9사 등 업체대표 14명

○ 주요 논의사항

- 자동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논의
- 자동차 업계 동향 및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 : 자동차조선과장
14:05~14:10	○ 인사말씀	지경부 장관
14:10~14:20	○ 자동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주력산업정책관
14:20~15:20	○ 업계 현안 및 건의사항 논의	진행 : 성장동력실장
15:20~15:25	○ 맺음말씀	지경부 장관

참석자 명단 (총 26명)

연번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1	정부 (6명)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2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조 석
3		지식경제부	주력산업정책관	남기만
		지식경제부	대변인	정만기
4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장	주영준
5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장	윤종연
6	유관기관 (4명)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원장	이기섭
7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송종호
8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사장	윤수영
9		코트라	본부장	오성근
10	완성차 (5명)	현대자동차	사장	정진행
11		기아자동차	사장	이삼웅
12		르노삼성자동차	부사장	박수홍
13		쌍용자동차	부사장	이재완
14		한국GM	상임고문	최인범
15	부품업체 (9명)	대동시스템	회장	이중아
16		대원강업	부회장	허승호
17		대한솔루션	회장	권회현
18		만도	부회장	변정수
19		명화공업	회장	문채수
20		인펙	회장	최오길
21		진합	회장	이영섭
22		한라공조	회장	신영주
23		현대모비스	사장	전호석
24	단체 (2명)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회장	권영수
25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 동명통산 회장	이사장	신달석